

< 제 19 장 >

요 19: 1-16 빌라도의 재판을 기록한 내용이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장면이다.

요 19:17-37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요 19:38-42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이다.

‘빌라도’(Pontius Pilatus : 로마인. AD 26-36 유대 지방 총독)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그를 놓아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반역자로 몰아 강하게 요구하자, 빌라도는 이러한 정치적 위험과 민중의 소요를 두려워하여 끝내 자신의 판결을 굽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것으로 인해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알면서도 정죄한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역사적으로 큰 죄인이 되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예정된 인물인가?>

빌라도가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게 된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예정되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 계획 속에서 역사적 시간 가운데 사용된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빌라도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카이로스’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역사적 시간인 ‘크로노스’ 안에 나타난 인물이다.

빌라도의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카이로스’의 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가 빌라도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 안에서 ‘크로노스’를 사용하시지만, 인간은 자신의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나게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점인 ‘호라’ 안에서 ‘카타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그 사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예정된 ‘카이로스’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나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들의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사용할 때가 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세상의 시간인 ‘크로노스’는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비추라” 명하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들을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앗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메데와 바사는 회개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나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은 아니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회개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 것이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나라였다.

지금은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나라들이 사라졌지만, 애굽(Egypt)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사사기에 등장하는 열한 명의 사사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 사용하신 사람들이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예정하신 인물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주권적으로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피조물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단순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도구로 사용되는 것과 사명으로 부름받는 것은 구별된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을 찾아야 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요 19:30 다 이루었다 하시고 ~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노라!> (τετέλεστα. 테텔레스타이)

(끝나다 finish. 완성하다 complete. 수행하다 carry out. 성취하다 accomplish)

죄 없는 예수님은 범죄자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렸고, 죄 있는 바나바는 자유인이 되었고, 생수의 강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어가고 계신 이때에, <다 이루었노라>고 선포하고 있다.

죽어 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인가?

① τετέλεστα!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며, 곧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완성되었다’는 완료형 으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더 이상 보완될 필요가 없음을 나타냄)

② τετέλεστα!

하나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로서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셨다는 선포이다.

③ τετέλεστα!

예수님 구속 사역의 완성에 대한 선언이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말으신 사명을 모두 이루시고 본래의 위치인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다는 선포이다. (이 승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전환을 의미한다.)

④ τετέλεστα!

사탄에 대한 승리의 선포이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인류의 죄와 질고와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승리이며 복음의 핵심이다.

(이 승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적 권세의 전환을 의미한다.)

“τετέλεστα” 이 짧으면서도 장엄한 한마디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παρέδοκεν τό πνεύμα 파레도켄 토 퓨뉴마)

“떠나가시니라” (παράδωμι 파라디도미)

(영혼이) 몸으로부터 나가 어느 특정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내어 맡기다, 넘겨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낸다.

- . 프뉴마(πνεύμα) :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을 의미.

이는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생명이 있을 때는 몸 안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 숨과 함께 몸을 떠나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생기”
(נשמת חיים 니쉬마트 하임)를 말한다.

- . 프쉬케(ψυχή) : 영혼. 목숨. 생명(생명의 원리로서)을 의미.

육체와는 다른 존재로,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본질적인 ‘영혼’을 말한다.

<계 6:9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 죽은 후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영혼의
상태를 보여 주는 말씀으로, 여기서 ‘영혼’은 ‘프쉬케’를 의미한다.

‘프쉬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생명’(생기: נשמת חיים, 니쉬마트 하임)으로
인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된 영혼을 가리킨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창2:7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חַיִּית וְנֶפֶשׁ, 네페쉬 하이야)은 하나님의 '생기'(חַיִּית נִשְׁמַת 하임)가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프쉬케'와 '프뉴마'의 관계>

'프쉬케'(영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프뉴마'(생기)가 있어야 한다.

'프뉴마'(생기)가 들어오므로 '프쉬케'(영혼)가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생령)

육체는 이러한 영의 활동을 위한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프뉴마'와 '프쉬케'가 함께 작용하는 존재로,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

- .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인간과 필요에 따라 창조한 동물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
이는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은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 . 생물은 '흠'으로 지으시고 '말씀'에 의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은 '흠'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위에 '생기'를 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한 생물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함께 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구별된다.

<가시관>(crown of thorns)

“창 3: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의 죄로 인한 형벌의 결과이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비록 타인에 의해 씌워진 것이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들어온 원죄와 인간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나 이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